

#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1978년 장한상(張漢相, 1656~1724)의 울릉도 수토(搜討) 내용을 담고 있는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발견은 울릉도·독도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울릉도사적」은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에 관한 구체적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통치를 입증해 주는 사료다. 특히 울릉도에서 독도를 직접 목격하고, 목측(目測)을 통해 실측(實測)에 근사한 거리와 크기를 서술한 장면은 읽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울릉도사적」 및 장한상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가 많지 않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울릉도사적」의 경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높은 성가(聲價)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구성, 성립 연대, 상호관계 등 문헌학적 고찰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감이 없지 않다. 마침 근래에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비명(節度公兩世碑銘)』이 널리

\* 논문 투고일: 2018. 10. 10. 심사 완료일: 2018. 11. 5. 게재 확정일: 2018. 11. 19.

알려지고,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 및 『교동수사공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이 공개됨과 동시에 순천 장씨(順天張氏) 가문의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 등의 자료가 알려지면서 연구의 활로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다음 몇 가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고, 연도 추정 단서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西溪雜錄)』의 「울릉도(蔚陵島)」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臥遊錄)』의 「울릉도(蔚陵島)」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추론해 보려고 한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멀리 동남쪽에 보이는 섬(독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에 나타난 우산도·울릉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다는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 II.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와 필사 연도

「울릉도사적」은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1978년 울릉도에서 처음 발

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의 『독도연구(獨島研究)』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월 20일 도달한 이후 10월 3일까지 장한상(張漢相)은 섬의 이곳저곳을 두루 살피었다. 그리고 이 심찰(審察) 결과를 부도(附圖)와 함께 정부(政府)에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報告) 등사본(謄寫本)이 현재 남아 있는데 표제(表題)가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저자는 이 문단의 각주에서 「울릉도사적」의 입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삼척첨사(三陟僉使) 장한상(張漢相)은 울릉도(蔚陵島)를 심찰(審察)한 후 그 결과를 부도(附圖)와 함께 정부(政府)에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서(報告書) 별단(別單)을 찾을 수 없던 중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蔚陵島·獨島學術調査團)이 울릉도(蔚陵島)에서 입수한 『절도공양세비명(節度公兩世碑銘)』이란 표제(表題)로 된 소책자(小冊子) 속에서 발견되었다.(후략)<sup>2</sup>

송병기 교수도 울릉도·독도 연구에 「울릉도사적」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고 있다.

울릉도 수토제도를 정리하는 데는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료는 삼척첨사 장한상이 울릉도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 기록으로 그의 외후손 신광박(申光璞)이 정리한 것이다.<sup>3</sup>

1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 1985,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 175~176쪽.

2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회, 1985, 앞의 책, 176쪽 각주.

3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21쪽 각주.

유미림 박사 역시 「울릉도사적」의 발견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만, 발견된 곳이 울릉도가 아니라 장한상 후손가이며, 1978년이 아니라 1977년이라고 적고 있다.

조선시대 울릉도 관련 기록은 관찬 지지(地志)나 사서(史書)를 제외하면 개인 기록으로는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울릉도사적」도 알려진 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이 사료는 1977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울릉도·독도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장한상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sup>4</sup>

필자는 「울릉도사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 자료를 수집하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하였다. 아마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1977~1978년 무렵 장시규(1627~1708)·장한상(1656~1724) 부자의 사당인 경덕사(景德祠)에서 『절도공양세비명』을 가져다가 마이크로필름에 사진을 찍은 다음 되돌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울릉도사적’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독도자료: 동양편 2』가 검색된다. 이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한데, 여기에 『절도공양세비명』 전체가 복사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도서관에서 ‘절도공양세비명’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이크로필름 자료 『절도공양세비명』이 검색된다. 이 자료는 『절도공양세비명』 전체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사료관에서 필름 리더기를 통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하다.

필자는 「울릉도사적」의 필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북 의성의 경덕사에 소장되었던 『절도공양세비명』을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절도공

4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54쪽.

양세비명』을 관람했다. 이 책은 원래 경덕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의성조문국 박물관에 기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수장된 『절도공양세실록』에도 서체가 다른 「울릉도사적」 필사본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랍고 반가웠다.<sup>5</sup> 박물관 측의 배려로 사진을 제공받아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를 살펴보자. 『절도공양세비명』의 끝에 필사자 신광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sup>6</sup> 서체로 보아 「울릉도사적」만이 아니라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울릉도사적」 사진만 보고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울릉도사적」에 바짝 붙여 필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박이 「울릉도사적」만 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사 연도와 이름을 쓴 줄이 앞줄에 바짝 붙여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울릉도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절도공양세비명』의 필사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첫째, 임인년, 둘째 외후예, 셋째 영양 신광박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셋째부터 살펴보면, 영양(永陽) 신씨는 네이버 검색에도 나오지 않으며, 영양군문화원에 문의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신광박에 대하여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인명 검색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뒤늦게 영양(永陽)이 영양(英陽)이 아니고 영천(永川)의 옛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영천문화원에 문의해 보았으나 영천 신씨에 대해서 역시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본관이 영천이 아니고 거주지가 영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인년인데, 1722년으로 비정한 유미림 박사의 견해를 따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722년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인년은 1662, 1722, 1782, 1842, 1902, 1962년 등에 해당된다. 유미림 박사는 아마도 1694년 수토가 있었고 그 해에 장한상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5 의성조문국박물관 특별기획전의 도록 『독도와 장한상』(2014)에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이 도판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었으나,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瑛書(임인년 봄에 외후손 영양 신광박이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장 빠른 임인년인 1722년에 신광박이 필사했을 것으로 비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울릉도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양세비명』을 보면 장한상에게 내린 경종 임금의 「사제문(賜祭文)」과 채헌징(蔡獻徵)이 쓴 「비명(碑銘)」이 함께 실려 있다. 즉 장한상이 죽은 다음에 필사된 것이다. 장한상은 1724년(경종 4)에 사망하였으므로, 신광박이 장한상의 「비명」을 1722년에 필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인년은 1782, 1842, 1902, 1962년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끝으로 신광박이 외후예라고 했으므로, 장시규·장한상 가문의 사위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비명」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1977년 간행된 『순천장씨족보』에서도 신광박은 나오지 않는다.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III.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 그리고 「승평문헌록」

#### 1.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의 비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보자.

〈표 1〉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의 편집 비교표

「절도공양세실록」	「절도공양세비명」	비고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兩代碑銘	
喬桐公 賜祭文	節度公 賜祭文	喬桐公—節度公 肅宗
輓詞		143首
碑銘		息山 李萬敷 撰, 外曾孫 成爾河 書
北兵使公 賜祭文	北兵使公 賜祭文	景宗
碑銘		護軍 蔡獻徵 撰, 崇禎後再周乙巳八月日立
蔚陵島事蹟	蔚陵島事蹟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瑛書	

『절도공양세실록』은 별도의 목록 없이 교동공(喬桐公) 장시규와 북병사공(北兵使公) 장한상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교동공 파트에는 사제문, 만사, 비명이 실려 있고, 북병사공 파트에는 사제문, 비명,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다. 사제문은 국왕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각각 가장 앞부분에 실었는데, 전통시대의 일반적 형식으로 보인다. 교동공에 대한 만사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책의 편찬자와 필사자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본문 가장 앞에 ‘절도공양세실록’이라는 내용 제목이 있고, 책의 마지막에 ‘절도공양세실록중(節度公兩世實錄終)’이라는 기록이 있다. 전형적 양식에 따른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 『절도공양세실록』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익성조문국박물관 제공)

『절도공양세비명』은 장시규와 장한상의 비명을 가장 앞으로 끌어내 배치 하면서 별도의 내용 제목도 없이 ‘양대비명’의 소제목을 붙이고 바로 장시규와 장한상의 비명을 연속하여 실었다. 그리고 나서 교동공을 절도공이라고 바꾸어 소제목을 붙이고 사제문만 싣고 『절도공양세실록』에 있는 만사 전체를 싣지 않았다. 이어서 북병사공의 소제목 하에 사제문과 「울릉도사적」을 실었다. 책의 마지막에 ‘임인춘외후예영양신광박서(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고 하여 필사자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 방식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왕조시대에는 임금이 하사한 사제문을 앞에 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사람의 비명(碑銘)을 앞으로 끌어내는 특이한 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진 2〉 『절도공양세비명』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오른쪽) (의성조문국박물관 제공)

그런데 두 책에 공히 실린 「울릉도사적」을 비교하여 보면,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에 교정할 곳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에서 그 교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은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을 필사한 것이 틀림없다. 『절도공양세실록』의 편찬 연대는 장한상 사후라는 것만 추정할 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절도공양세비명』은 아마도 가문의 문헌을 종합·정리하여 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임시로 필사한 것이거나, 필사자 신광박이 개인적으로 열람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공양세비명』이라는 표제도 내용을 포괄하지 못해 어색하다. 후대에 누군가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일 수도 있다.

## 2. 『절도공양세실록』과 『승평문헌록』의 비교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표제는 『문헌록(文獻錄)』으로 되어 있으나, 내

용 제목과 관심 제목은 공히 『승평문헌록』으로 되어 있다. 『승평문헌록』은 의성 비안의 순천 장씨가에 전승되던 선대의 문헌들을 후손 장규섭(張奎燮)이 경자년(1900)에 편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에 장규섭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은 ‘고종이 등극한 지 37년’이라는 뜻이므로 임술년(1922)이 아니라 경자년(1900)이 된다.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하고 인쇄하였다. 장서각 아카이브에서 복간본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승평문헌록』의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이다. 절도공은 장시규를 가리키고, 소절도공은 장한상을 가리킨다.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은 앞에서 살펴본 『절도공양세실록』의 체계와 내용을 이어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코 『절도공양세비명』의 체계가 아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울릉도사적」이 누락된 점이다.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표 2〉 『승평문헌록』 목록 비교표<sup>7)</sup>

초간본 목록	복간본 목록	비고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三 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遺事後敘一遺事後敘三 (개수 차이는 없음)  白川書院奉安文→奉安文
二隱公事蹟 墓碑文	二隱公事蹟	초간본의 墓碑文이 복간본에서는 삭제됨
三隱公事蹟 行狀略	三隱公事蹟 行狀	行狀略→行狀

7 의성 안계에 거주하는 절도공의 방예(傍裔) 장자진(張子鎭) 응께서 『승평문헌록』 초간본과 복간본, 그리고 『순천장씨족보』(1, 2) 등 4책을 동북아역사재단에 기증하여 주셔서 이 표의 작성이 가능했음을 밝힌다. 응께서는 손수 경덕사와 절도공의 묘소에까지 안내를 해주셨다. 응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文巖公行蹟 墓誌 序 白川精舍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序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白川精舍奉安文→奉安文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文獻錄跋	文獻錄跋	목록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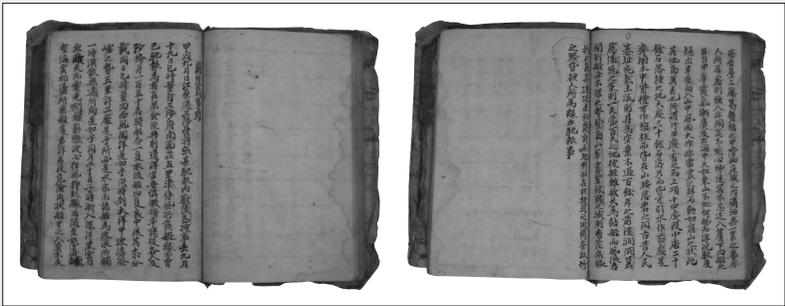
복간본은 아마도 1977년 『순천장씨족보』(전2권)를 편찬 간행하면서 『승평 문헌록』 초간본의 잘못된 곳을 수정하여 복간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서 보듯 초간본의 몇 글자를 삭제하였고, 또 이은공사적(二隱公事蹟)에 수록된 묘비문을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삭제된 묘비문 시작 부분에 장규섭의 이름이 보인다.

## IV. 『교동수사공만제록』의 「울릉도사적」 추가 발견

이주 최근에 경덕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교동수사공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에 또 다른 필사본 「울릉도사적」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고,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부탁하여 사진 자료를 제공받아 내용을 살펴볼 수 있

었다. 그리고 『교동수사공만사(喬桐水使公輓辭)』도 함께 받아 검토하였는데, 『교동수사공만사』는 『교동수사공만제록』에서 만사만을 뽑아내어 만사를 지은 저자들의 인물 비증을 고려하여 재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교동수사공만제록』의 구성을 살펴보자. 교동수사공은 장한상의 부친 장시규를 말한다. 이 책의 첫 부분은 장시규에 대한 만사(輓辭)들이 실려 있고, 이어서 숙중 임금의 장시규에 대한 사제문(致祭文)이라는 이



〈사진 3〉 『교동수사공만제록』의 「울릉도사적」 첫 면(왼쪽)과 마지막 면(의성조문국박물관 제공)

름으로 실려 있고, 그다음 장시규의 묘갈명이 있으며, 이어서 ‘경화장상공삼경첩운(敬和張相公三慶帖韻)’이 서문과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장한상의 사제문, 행장이 들어가 있다. 이어서 다시 장시규의 ‘무자방목급사환년조(戊子榜目及仕宦年条)’, ‘정묘생갑계현(丁卯生甲契憲)’ 및 ‘좌목(座目)’이 실려 있다. 그다음에 다시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상당량의 제문들이 실려 있다.

책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자료 관리자가 책의 앞부분에 만사와 치제문이 실려 있어서 『교동수사공만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는 다른 곳에 실리지 않은 장한상의 행장과 제문들이 실려 있다. 또 「울릉도사적」도 실려 있는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필사본이 『절도공양세비명』과 『절도공양세실록』에 들어 있는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사적」 3종에서 상호간 글자 출입이 어떠한지 몇 가지 예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표 3〉 「울릉도사적」 3종 글자 출입표

「교동수사공민제록」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	
張某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搜事	1면 1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領率	1면 3행	領來	2면 2행	領來	1면 5행
水汲船	1면 4행	汲水船	2면 3행	汲水船	1면 6행
自北蔽天	1면 8행	自此蔽天	2면 7행	自此蔽天	2면 4행
東西北三處， 亦有篁竹田十一處	3면 2행	누락	4면 2행	누락	4면 7행
四望遠近	3면 6행	西望遠近	4면 7행	西望遠近	5면 6행
又有石葬十五所， 北方長谷	3면 7행	누락	4면 8행	누락	5면 7행
西南大谷有人居基 址七所	3면 9행	누락	4면 9행	누락	5면 8행
貓鼠	5면 1행	貓兒	6면 1행	貓兒	8면 2행
十四處	8면 5행	四五處	10면 3행	四千處	14면 6행
馳報事	9면 2행	馳報狀	10면 10행	馳報狀	15면 7행

\* 세 책 모두 면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울릉도사적」이라는 제목이 있는 면을 1면으로 삼아 면수를 표시하고, 행수는 제목을 빼고 1행부터 표시하였다.

## V. 『와유록』의 「울릉도」와 『서계잡록』의 「울릉도」

「울릉도」가 실려 있는 『와유록(臥遊錄)』은 12권 12책의 한문필사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도서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표점·영인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의 편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근자의 연구에 따르면<sup>8</sup>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아들 남학명(南鶴鳴, 1654~1722)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학명은 문집 『회은집(晦隱集)』과 『명산기영(名山記詠)』, 『와유록』을 남겼다. 남학명이 『와유록』을 편찬한 사실은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서계집』 제8권에 실린 「와유록서(臥遊錄序)」를 통해 알 수 있다.

8 김영진, 2015,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학회, 238~239쪽.

남생 학명(南生鶴鳴)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벽(性癖)이 있다. 그중에 산수의 유람을 특히 좋아하여 그 발길이 닿은 곳과 눈길이 미친 곳이 이 땅의 반이나 될 정도이니, 그야말로 세속을 초탈하여 고금(古今)의 비루한 자취를 씻어 내었을 것이다. 게다가 또 옛사람들의 산수에 대한 기문(記文)을 많이 수집하여 이를 ‘와유록(臥遊錄)’이라 이름하였으니, 아침저녁으로 펼쳐 보며 이를 통해 직접 유람하는 수고를 대신하고, 그 힘으로 다 볼 수 없는 것을 다 구경하였을 것이다?

『명산기영』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3권 3책의 필사본인데, 의춘세가(宜春世家), 남학명인(南鶴鳴印), 자문장서(子聞藏書) 등의 인기(印記)로 미루어 남학명이 편찬한 것이며, 내용상 장서각 도서 『와유록』의 저본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0</sup>

한편, 독도와 관련하여 안용복 사건, 울릉도 쟁계,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는 남구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박세당은 남학명의 고모부로서 남구만과는 처남매부 사이이다. 박세당은 중년 이후 관직을 포기하고 은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두 집안은 소론의 핵심 가문이었다. 남학명은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朴泰輔, 1654~1689)와도 고종사촌 간으로 친밀하게 교류하였다. 박태보의 여행기가 『와유록』에 실려 있다.

다음으로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대해 살펴보자. 유미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에” “서계 박세당의 11대손 박찬호씨”가 장서각에 ‘서계 종택 고문서’를 기탁하면서 알려졌다. 이때 공개된 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실려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이 소개<sup>11</sup>되었다”고 한다.<sup>12</sup>

『서계잡록』의 「울릉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학명의 『와유록』에서 필사한 부분, 둘째, 군관 최세철이 본인의 수토

9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에서 검색 인용.

10 이종득, 2004,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99~100쪽.

11 (인용문의 원주)김기혁·윤용출, 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24쪽.

12 유미림, 2013, 앞의 책, 54쪽.

전에 울릉도를 정탐하고 온 사실에 대한 장한상의 보고, 셋째, 장한상 자신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와서 비변사에 올린 보고이다. 『서계잡록』 「울릉도」의 앞부분과 『와유록』의 「울릉도」가 같은 내용이다. 그렇다면 『서계잡록』의 「울릉도」에서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유미림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와유록』의 「울릉도」는 ‘지지(地誌)’가 그 출전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건대 여기서 말한 ‘지지’란 『동국여지승람』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지지’ 내용은 앞부분까지이고 뒷부분, 즉 승려의 언급 부분은 ‘지지’에는 없다. 박세당의 글을 일부 추출하여 『와유록』에 실으면서 편자가 출전을 ‘지지’라고 밝힌 듯하다. 승려로부터의 전문(傳聞) 부분은 박세당의 글에 처음 보이기 때문이다.<sup>13</sup>

유미림 박사는 『와유록』 「울릉도」의 편자가 박세당의 『서계잡록』 「울릉도」에서 ‘승려로부터의 전문(傳聞) 부분’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와유록』의 「울릉도」는 저자가 박세당이건 무명씨이건 한 사람이 작성한 완결성을 갖춘 글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와유록』의 편자 남학명이 고모부 박세당의 글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울릉도」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남학명이 찬(撰)한 것이지 편(編)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했을 경우일지라도 인용처를 밝히면서 자찬(自撰)이라고 밝혔을 것이다. 만약 『와유록』의 「울릉도」가 박세당의 글이라면, 편자 남학명은 박세당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받은 처지에 고모부 박세당이 찬하였다고 밝혔지, 출처를 ‘지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미림 박사의 말을 달리 해석하여 『와유록』의 편자가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일부 가지고 온 것이 『와유록』의 「울릉도」라면, 이 또한 편자 남학명은 찬자를 ‘박세당’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며,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계속되는

13 유미림, 2013, 앞의 책, 55~56쪽.

장한상의 수토 기록도 함께 수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승려가 전해준 이야기보다 장한상의 수토가 훨씬 값어치 있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남학명의 『와유록』보다 늦게 편찬된 규장각 도서 『와유록』(7책)에 실려 있는 조한기의 「울릉도수토기」의 예를 보더라도, 남학명이 장한상의 수토기를 뺐 이유가 없다.<sup>14</sup>

따라서 필자는 『서계잡록』의 「울릉도」가 『와유록』의 「울릉도」를 필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뒤에 장한상의 수토 기록을 입수하자,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박세당은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주었는데, 이때 『와유록』을 보았을 것이고 흥미 있는 내용을 필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준 시기를 1692년에서 1694년으로 비정한 연구가 있다.<sup>15</sup> 서문이 1692~1694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보고는 1694년 9월과 10월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아 남학명의 『와유록』에 장한상의 수토 보고를 수록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남겨둔다.

다음으로 『서계잡록』 「울릉도」에 실린 군관 최세철의 울릉도 사전 정탐에 대한 장한상의 보고는 다른 관찬 사료에도 없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도 없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서계잡록』 「울릉도」와 「울릉도사적」의 공통 부분, 바로 장한상 자신의 울릉도 수토 보고 부분이다. 그런데 이 두 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왜 달라졌을까?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울릉도사적」에는 울릉도에서 육지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반면 『서계잡록』 「울릉도」에는 귀환하는 과정과 치보(馳報, 보고서)<sup>16</sup>가 지체된 연유까지

14 물론 장한상의 수토 기록이 군국의 기밀에 해당하여 일부러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15 김영진, 2015, 앞의 논문, 238~239쪽.

16 유미림 박사는 “그의 집안이 소장해 오던 「울릉도사적」이 치보 형태인 것으로 보아 비변사에 보냈다는 보고서도 「울릉도사적」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유미림, 2013, 앞의 책, 68쪽.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도사적」이라는 제목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울릉도사적」 작성의 토대가 되었던 문서는 강원감영이 장한상의 치보를 받은 다음 그 치보를 내용으로 첨부하여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狀啓)였을 것이다.<sup>17</sup> 현재 그 장계가 관찬 사료에 전하지 않지만, 등사본 「울릉도사적」에 장계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 제목은 장한상이 붙인 제목은 아닐 것이다. ‘사적’이라는 말은 ‘실기(實記)’ 또는 ‘실록’, ‘유사(遺事)’라는 용어와 같이 후손들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 VI. 「울릉도」와 「울릉도사적」 그리고 독도

독도 연구자들 사이에 『와유록』과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공히 보이는 아래 인용문과 「울릉도사적」의 독도 목격 부분을 연관시켜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문장이다. 두 본 사이에 글자의 출입이 있으므로 『와유록』의 「울릉도」에서 인용한다.

盖二島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清朗，不登最高頂，則不可見。鬱陵稍峻，風浪息，則尋常可見。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朝日纔高三丈，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먼저 최장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대개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

17 배재홍 교수는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하고, 비변사가 승정원을 통하여 왕에게 보고한 보고서에서 「울릉도사적」을 등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울릉도사적」이 감영에서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狀啓)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본다. 삼척영장 및 삼척첨사는 강원감영에 속한 관리이기 때문에 강원감영에 치보를 하고, 강원감사는 이 치보를 첨부하여 비변사에 장계(狀啓)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서행정의 방식이었다. 치보라는 용어는 지방관이 감사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을 일컫고 감사가 비변사에 올리는 문서 양식을 장계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울릉도에서)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가 조금 더 높다. 풍량이 잦아들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다. 미록웅장(麋鹿熊獐)이 이따금 바다를 건너 나온다. 아침 해의 높이가 겨우 3장일 때에 섬 안의 황작(황새나 꿩꼬리) 무리가 죽변곶(岬)에 날아와 앉는다.<sup>18</sup>

이렇게 번역하고 나서 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울릉도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목으로 보아 울릉도와 우산도입에 분명하다. 동해에 있는 섬 중에 울릉도에서 날씨가 아주 맑아야 보이는 섬은 지금의 ‘우산도(독도)’뿐이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야만 보이는 곳은 지금의 ‘우산도(독도)’뿐이다.<sup>19</sup>

최 교수는 위 인용문의 ‘去此’를 번역하지 않았다. ‘이곳으로부터’는 ‘육지로부터’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누락하고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두 섬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해석한 것은 글의 원 뜻을 크게 오독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유미림 박사의 번역을 살펴보자.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sup>20</sup>

18 최장근, 2013, 「독도 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48쪽.

19 최장근, 2013, 앞의 글, 48쪽.

20 유미림, 2013, 앞의 책, 60쪽 및 372쪽.

이 번역문을 근거로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장한상이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 데…’라고 한 것이 ‘우산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본다면, 박세당의 언급은 장한상의 언급과 서로 부합된다는 점이다. 장한상이 말한 섬은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고,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 역시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곳에 서만 보이는 섬이므로 둘 다 울릉도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와 장한상이 말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같은 섬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박세당에 따르면,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 섬이다.<sup>21</sup>

두 사람 모두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가 보인다는 것을 읽어 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장한상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목격한 것과 연관시켰다. 그러나 필자는 위 인용문이 육지에서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시습, 곰, 노루 등이 간간히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꿩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

21 유미림, 2013, 앞의 책, 61쪽.

필자는 이 부분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산도·울릉도 조의 첫머리 언급<sup>22</sup>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육지(평해, 죽변 등)에서 멀지 않아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육지에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와유록』에는 이산해의 「울릉도설(蔚陵島說)」도 「울릉도」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산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리(文理)를 무시한 번역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Ⅶ. 맺음말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자국의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를 계기로 울릉도 수토제도가 법제로 확립되어 1894년까지 200년간 이 제도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울릉도를 수토하여 왔던 것이다. 특히 「울릉도사적」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하고 그 거리와 크기까지 묘사되어 있어서 조선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제고시켰다. 이 글은 「울릉도사적」의 필사본 2종 추가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된 연구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철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였다. 17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어도 1782년 이후에 필사

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5, 蔚珍縣, “于山島·鬱陵島 … 風便則二日可到.”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필사 시기가 늦추어진다고 하여 장한상이 울릉도를 수토한 연도가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필사 시기가 늦추어진다고 해도 독도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하였다.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의 「울릉도」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으며, 「울릉도사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 국문초록

이 글은 「울릉도사적」의 필사본 2종 추가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개략적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절도공양세비명』의 「울릉도사적」 발견 경위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자료가 필사된 연도를 재검토하였다. 1722년에 필사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어도 1782년 이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둘째,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들어 있는 책자 『절도공양세실록』과 『절도공양세비명』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이들 책자의 주요 내용이 순천 장씨 가문의 문적인 『승평문헌록』에 수록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아주 최근에 공개된 『교동수사공만제록』을 소개하였다. 이 책자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필적의 「울릉도사적」이 나머지 2종의 「울릉도사적」보다 먼저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넷째, 「울릉도사적」은 이른바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연결되어 연구되어 왔는데, 『서계잡록』의 「울릉도」와 『와유록』의 「울릉도」를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서계잡록』의 「울릉도」 중 『와유록』의 「울릉도」와 겹치는 부분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와 장한상의 「울릉도사적」에 나타난 '멀리 동남쪽에 보이는 섬(독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와유록』의 「울릉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과 다름이 없으며, 「울릉도사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장한상,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비명, 절도공양세실록, 교동수사공만제록, 승평문헌록

ABSTRACT

A Philological Research of Jang Han-sang's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hee, Wontaek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rrect copy-written year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in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and to introduce another two copies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discovered in 2014 and 2018.

In 1694, Jang Han-sang's military units patrol governance activities around Ulleungdo Irelands are recorded at official document and reported to royal government. That document made various written copies. Those copies prove the government-rule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Joseon Dynasty.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in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has been regarded as being copy-written in 1722. However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has contained the epitaph of Jang Han-sang. Thus, I suggest that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was copy-written in 1782 or after.

In 2018, I found two different copies of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through investigations of the relics of Jang Han-sang's shrine, Gyeongdeoksa(景德祠) and Uiseongjomunguk Museum in Gyeongbuk Province. The two copies are contained in the *Funeral Poetry to Kyodong Port Admiral Jang(喬桐水使公輓祭錄)* and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In this paper, I compare the three cop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each other.

Keywords

Jang Han-sang,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Epitaph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碑銘)*, *Funeral Poetry to Kyodong Port Admiral Jang(喬桐水使公輓祭錄)*

## 참고문헌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喬桐水使公輓辭』, 『喬桐水使公輓祭錄』, 『昇平文獻錄』, 『臥遊錄』, 『西溪雜錄』, 『東國輿地勝覽』

김기혁·윤용출, 2006,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영진, 2015,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이종목, 2004,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최장근, 2013, 「독도 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_의성 경덕사 소장 고문서 및 유물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4430000,37&pageNo=5\\_2\\_1\\_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21,04430000,37&pageNo=5_2_1_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검색서비스